



## 미국 : 노동부 장관에 유진 스칼리아(Eugene Scalia) 임명, 이에 대한 반발 거세

트럼프 정부는 민간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법, 연방 규제법 등에 정통한 유진 스칼리아(Eugene Scalia)를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친기업 법률회사인 O'Melveny의 파트너 변호사인 그레고리 제이콥(Gregory Jacob)은 그가 노동법에 매우 능통한 변호사로 각종 기업규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개혁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소매산업협회장 브라이언 다지(Brian Dodge)는 그를 노동, 고용 등 분야에 합리적이고 뛰어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진 스칼리아는 2002년 부시 행정부 노동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으며, 12년간 친기업 법률회사인 김슨 던(Gibson Dunn)에서 일하면서 보잉 등의 기업 측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sup>1)</sup>

친노동자 진영에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유진 스칼리아를 임명한다는 것은 트럼프 정권 노동정책이 보다 친기업적으로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먼저, 금융개혁을 위한 미국 정책 이사회의 마커스 스탠리(Marcus Stanley)는 유진 스칼리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financial reform law)을 무산시키려는 기업들의 중심에 있었다고 기억했다. 구체적으로 유진 스칼리아는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교체하려 했거나, 규제 정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알려진다.

또한 그는 소위 신의성실의무(fiduciary standard) 규칙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도 했다. 신의성실의무는 미국에서 퇴직연금(401k)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가 자신에게 고수익을 주는 사업자가 아닌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이 규칙의 약화로 중산층 투자자들은 연금을 관리할 때 스스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되었다.<sup>2)</sup>

- 1) The Washington Examiner(2019.7.20), "Eugene Scalia, Trump's labor nominee, frustrated Obama's agenda with mastery of legal minutiae",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policy/economy/eugene-scalia-trumps-labor-nominee-frustrated-obamas-agenda-with-mastery-of-legal-minutiae>
- 2) The CBC news(2019.7.19), "Eugene Scalia, Trump's pick to head the Labor Department, scares worker advocates to death", <https://www.cbcnews.com/news/eugene-scalia-trumps-labor-secretary-scares-worker-advocates-to-death/>



## 미국 : 아마존 물류직 사원들, 자체 연례 세일 행사일에 파업 결의

미국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Amazon)은 매년 시행하는 자체 연례 세일 행사일(Prime Day)을 7월 15~16일 이틀로 지정하여 예년보다 하루 더 연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백만 건의 세일을 계획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에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한 창고의 물류직 사원들은 7월 15일 중 6시간 동안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약속한 바 있었던 임시직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무리한 수준의 배송처리 업무량의 감소 모두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은 위와 같은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안정성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파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아마존 사는 위와 같은 주장들이 모

두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일축하였다. 자신들은 현재도 시간당 최대 20달러(한화로 2만 2천 원)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창고의 물류직 사원들의 90%가 이미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들이며 100명 이상의 임시직 직원들이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들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창고의 생산성 수준은 위와 같은 노력에도 최근 7달간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직원들이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아마존 사의 노동조건을 둘러싼 논의와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1)</sup>

1) Fortune(2019.7.8), Amazon Warehouse Workers Plan Strike During Prime Day 2019. Retrieved on July 10th, 2019. <https://fortune.com/2019/07/08/amazon-prime-day-2019-strike/>

## 미국 : 트럼프 정부, 내년에는 난민 입국 거부에 무게

트럼프 정부는 2020년 난민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해당 정보는 미국 이민국, 국방부 등 부처 간 미팅에서 나온 정보로 알려진다. 현재 해당 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옵션이 고려되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 중 망명을 요구하는 이들을 엄격히 규제하

거나, 미국 입국에 제한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해당 미팅에서 백악관 보좌관인 Stephen Miller와 이민국 공무원 John Zadrozny는 진행 중인 안보문제, 망명자들에게 인도주의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의 현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난민 수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물론 존재한다. 인권단체의 Jennifer Quigley는 미국은 난민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로 이들 난민을 거부하는 것은 비겁하게 미국의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2018년 기준 7천만 명 정도로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트럼프 정권 들어와 미국의 난민 입국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7년 11만 명의 난민이 입국했으나, 2019

년 단지 3만 명의 난민만이 미국으로 들어왔다. 만약 난민을 제한하는 정책이 입안되고 대통령이 승인한다면, 실제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본 미팅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대변인은 대통령이 2019년 10월 1일에 2020년 난민 입국에 대한 정보를 밝힐 것이라 밝혔다.

1) CNN(2019.7.19), "Trump administration weighs allowing no refugees into US next year", <https://www.cnn.com/2019/07/19/politics/trump-admin-zero-refugees/index.html>

## 덴마크 : 양성평등부 장관, 양성평등한 이사진 비율 달성을 위한 규칙 신설

양성평등부 장관 이바 한센(Eva Hansen)은 덴마크에서 기업 내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낮고 여성 이사진 확대를 위한 변화가 더딘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성평등부에 따르면, 덴마크 기업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15%이며, 이사진 중 여성의 비율은 19%였다. 한편 덴마크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이사진 내 여성을 한 명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따라서 한센 장관은 최근 코펜하겐경영대학원(Copenhagen Business School)과 덴마크 내 7개의 HR기업들과의 제휴를 맺고 Codex라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sup>2)</sup> Codex는 HR 기업들을 비롯 채용정보 제공 및 알선기관들이 여성 이사진, 고위직 채용 시 따라야 하는 8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그

는 Codex 규칙이 여성 이사진 및 고위직 확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8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진, 고위직 내 다양성 및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분명하게 할 것
- ② 이사진 및 고위직 채용 논의 시, 능력과 잠재력을 우선시할 것
- ③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중 최소 33%를 여성으로 둘 것
- ④ 직원들의 양성평등 및 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및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⑤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잠재적인 여성 리더들을 모색할 것
- ⑥ 양성평등 및 다양성 관련 지식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최선의 방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⑦ 회사에서 세운 양성평등 관련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줄 것
- ⑧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

Codex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규칙 달성에 대한 결과를 코펜하겐경영대학원에 제출하고 코펜하겐 경영대학원은 결과를 모아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 1) The Local(2019.4.25), "How Denmark plans to get more women in leading jobs," <https://www.thelocal.dk/20190425/how-denmark-plans-to-get-more-women-in-leading-jobs>
- 2) Frivilligt kodeks for diversitet i rekruttering, [https://www.cbs.dk/files/cbs.dk/frivilligt\\_kodeks\\_for\\_diversitet\\_i\\_rekruttering\\_til\\_ledelse\\_og\\_betyrelser\\_2.pdf](https://www.cbs.dk/files/cbs.dk/frivilligt_kodeks_for_diversitet_i_rekruttering_til_ledelse_og_betyrelser_2.pdf)

### 스웨덴 : 직장 내 성폭력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상대적 소수 성별인 경우 성폭력 경험 비율이 더 높아

일자리 건강지수(Job Health Index)를 만든 창립자 라쉬 웨말손(Lars Hjalmarsson)은 최근 일자리 건강지수 연례 설문조사를 통해 약 50만 명의 스웨덴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sup>1)</sup>

일자리 건강지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직장 내 성폭력 경험은 남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직장 내 성폭력 경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떤 성별이 직장 내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여성이 배치된 일터에 남성 노동자가 성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남성이 많거나 남녀 비율이 동등한 일터에서 일할 때에 비해 높았다.

여성 중심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남성 중 15%는 직장 내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남성 중심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중 17%가 직장 내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폭력 경험은 연령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여성 중 26%, 젊은 남성 중 21%는 직장 내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 빈도는 줄어들었다.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자주 노출되는 산업은 보건의료산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종사자 중 4분의 1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환자 및 고객, 직장동료, 상사 등 다양한 행위자들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자들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더욱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두드러진 분야는 공공부문으로 해당 분야 내 관리자 중 14%는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일반 노동자는 9%만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1) Dagens Nyheter(2019.7.8), “Män nästan lika utsatta för sextrakasserier på jobbet som kvinnor,” <https://www.dn.se/ekonomi/jobbb-karriar/man-nastan-lika-utsatta-for-sextrakasserier-pa-jobbet-som-kvinnor/>

## 베트남: 2020년 지역별 최저임금 전년대비 5.5% 인상 전망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는 지난 2019년 7월 11일 하노이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노사정 대표들은 2020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5.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국가임금위원회가 이 결정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 수반인 총리가 이를 재가하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위와 같이 확정된다. 국가임금위원회는 정부 대표(노동보훈사회부) 및 사용자 대표(기업연합회-VCCI), 노동자 대표(노동조합총연맹)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사용자 대표는 2020년도 최저임금 4% 인상안을, 노동자 대표는 6.7% 인상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적으

로 5.5%로 합의하였다. 현행 베트남 최저임금은 경제적·사회적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을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을 1등급으로 가장 낮은 지역을 4등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합의대로 최저임금이 확정될 경우 2020년도 베트남 1등급 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4,420,000VND(약 190달러/전년대비 240,000VND 인상), 2등급 지역은 3,920,000VND(약 168달러/전년대비 210,000 VND 인상), 3등급 지역은 3,430,000VND(약 147달러/전년대비 180,000VND 인상), 4등급 지역은 3,070,000VND(약 132달러/전년대비 150,000VND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2019.7.11), <http://baodansinh.vn/thong-nhat-tang-luong-toi-thieu-vung-nam-2020-len-55-d101474.html>



## 베트남 : 2019년 상반기 채용시장 분석

베트남 호치민시 노동시장정보센터 'Falmi'는 2019년 상반기 채용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채용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전국 24,952개의 기업과 88,299개의 구인처, 69,271명의 구직자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채용인력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영업·판매(온라인 판매, 판매 관리, 수출입업 영업) 분야로 전체 채용 비율 중 22.65%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IT(네트워크 보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D게임 디자인 프로그래밍, 시각 효과 디자인) 분야가 8.17%로 나타났다. 금융(고객서비스, 신용지원, 회계, 은행, 전자뱅킹 사업) 분야는 8.17%로 IT 업계와 채용 비율이 같았고 부동산(부동산 중개 및 개발업) 분야 6.37%, 기계 및 자동화(기계 및 자동화의 설계와 설치, 운영) 분야 5.28%, 경영정보서비스(고객관리, 경영컨설팅, 직원교육) 분야 5.95%, 서비스 분야 4.97%,

행정·사무 분야 4.81% 순으로 조사되었다. Falmi는 2019년 말까지 베트남 내 도시 근로자 수를 약 4,528,434~4,68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베트남 제1의 경제도시인 호치민시의 경우에는 수출 호조와 건실한 생산성 유지로 경영환경이 안정되어 2019년 하반기에는 약 15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마케팅을 비롯한 엔지니어링, 건축, 건설, 정보, 기술, 섬유, 부동산, 금융, 자동차와 관련된 일자리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 중 직업교육과정 이상을 거친 비율은 83.21%로 이 가운데 4년제 대학 이상은 21.52%, 전문대학 이상은 17.58%, 중급직업전문과정 이상은 29.09%, 초급직업전문과정 이상은 15.02%이며, 우수한 노동력의 적절한 공급은 2019년 하반기 채용시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Falmi는 전망했다.<sup>1)</sup>

1) 베트남 호치민시노동조합연맹 기관지 '노동자'(2019.7.9), <https://nld.com.vn/cong-doan/nhom-nganh-nao-co-nhu-cau-tuyen-dung-cao-nhat-20190709093255912.htm>

## 호주 : 임금착취 고용주, 형사처벌 방안 도입 예고

호주 노사관계장관 크리스찬 포터(Christian Porter)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sup>1)</sup> 임금착취 행위가 반복되는 등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을 선

고받을 수 있으며, 처벌 기준이나 수준 등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처벌 강화 논의는 호주 유명 체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오랜 기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wage theft)

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속화되었다.<sup>2)</sup>

고용주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재검토할 계획으로 보인다. 같은 날 호주 정부는 전기노동조합(Electrical Trades Union)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 ‘프로

텍트(Protect)’ 일부를 부당 취득했다고 밝히고 해당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고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방안과 노동조합 관련 이해관계를 더 철저히 조사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sup>3)</sup>

- 1) Sydney Morning Post(2019.7.24), “Employers could face jail over wage theft under new laws,”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employers-could-face-jail-over-wage-theft-under-new-laws-20190724-p52ad5.html>
- 2) Sydney Morning Post(2019.7.24), “‘I think that's light’: Porter criticises \$200k fine for wage theft,”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i-think-that-s-light-porter-criticises-200k-fine-for-wage-theft-20190724-p52a65.html>
- 3) The Canberra Times(2019.7.24), “Defiant boss could sway Lambie on unions,”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6292090/unions-dipping-into-workers-funds/?cs=14264>

## 호주 : 민간부문 경제학자들, 고용률 성장에 대해 비관적 전망<sup>1)</sup>

2019년 6월 재무부 장관 조시 프라이든버그는 2018년 8월 이래 총 1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이 5.7%에서 5.2%로 하락했다며, 이는 현재 호주 경제가 견고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호주 중앙은행 총재 필립 로위도 이에 동의하며 현재 호주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간부문 경제학자들은 최근 1년간 창출된 새 일자리들 중 80%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라며, 고용률 증가가 호주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UBS 은행 경

제학자 카를로스 카초는 통계청 분기별 데이터를 통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에서 31만 개의 일자리가 신설된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5만 4천 개의 일자리만이 창출되었다고 밝혔다.<sup>2)</sup> 이에 대해 정부는 통계청 노동력조사(ABS Labour Force Survey)를 기반으로 한 수치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내 공신력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 - 호주 국립은행 NAB 사업체 조사(NAB Business Survey), ANZ 구인광고 데이터(ANZ Job Ads), 통계청 일자리 조사(ABS Job Vacancies)<sup>3)</sup> - 역시 일제히 민간부문 고용률 성장이 충분히 높지 않음



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팩-멜번인스티튜트(Westpac-Melbourne Institute)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대비 4.1%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2달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9년 6월 커먼웰스은행(The Commonwealth Bank)의 비즈니스 세일(Business Sales) 지표는 지난 2017년 2월 이래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호주 국립은행 NAB 분기별 비즈니스 설문조사<sup>4)</sup>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래 처음으로 기업들이 현 경기상황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하고 있다. NAB 수석 경제학자 앨런 오스터는 이런 현상들은 주로 세계 경제위기 때 관찰되며, 이는 그만큼 호주 경제 기반이 현재 충분히 탄탄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JP모건 수석 경제학자 셸리 아울드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부분 경기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1) ABC News(2019.7.23), "Public sector propping up employment and the economy, analysts say," <https://www.abc.net.au/news/2019-07-23/jobs-growth-dominated-by-public-sector/11334294>
- 2) ABC News(2019.7.23), "Public sector versus private sector employment growth," <https://www.abc.net.au/news/2019-07-23/public-sector-versus-private-sector-employment-growth/11335286>
- 3) 각 지표에 관한 설명은 아래 통계청 웹페이지를 참조.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6102.0.55.001~Feb%202018~Main%20Features~Job%20Vacancies~10>
- 4) 호주 3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